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부활절 후 제4주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하나님, 그 누구보다 일찍 꽃을 피운 매화가 벌써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습니다. 어여쁜 매실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실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나무에도 그런 어여쁜 열매가 가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빈털터리 같은 삶이지만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조금 늦더라도 꾸준한 걸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시대의 약자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요14:27 인도자

♠ 교 독 문 98. 아버지주일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이수정 선생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199(통234). 나의 사랑하는 책 다함께

성경봉독 I. 마9:9-13 천승호 학생

..... II. 막3:31-35 권미숙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사다리와 원탁 손성현전도사

..... II. 하나님의 가족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찬 송 558. 미더워라 주의 가정	다함께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나의 일을 함께 하자’며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사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뜻을 행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직분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실천함을 더욱 귀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심을 든든하게 지켜주십시오. 아멘.

♠ 찬 양<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말씀 : 김재흥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기도 : 최성애 집사	기도 : 박홍재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윤 윤 선생 한완식 장로	인도자 임주빈 집사

5월	영접위원	한완식 조문규 박규석 안정숙 진정숙 권미정
	헌금위원	방문성 정영선(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어머님의 건강과 존엄을 생각하는 기도잔치

이런 생각을 한 지는 오래된다. 늙고 병들었지만 어머니가 진짜 주인공이 되는 날을 만들고 싶었다. 온 세상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다. 온 식구가 어머니를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 모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를 존재의 근원으로 떠받드는 날을.

언젠가부터 어머니는 뒤로 밀렸다. 거추장스런 짐덩어리가 되었다. 5월 8일 어버이날은 가슴에 그 잘난 카네이션 한 송이가 대롱거러다 만다. 명절이라고 다르지 않다. 여든여섯의 몸 불편한 어머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언제부터인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헛소리’ 취급을 당했다.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다. 늙고 병든 어머니는 더 이상 ‘여성’도 아니었다. 옷에 오줌 누셨다고 사람들 있는 데서도 팬티를 마구 벗겨 내렸다.

생신날도 마찬가지다. 그 많은 음식, 그 많은 자손들의 왁자지껄한 안부 나눔은 모두 어머니를 비켜갔다. 어머니 생신을 핑계 삼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잔치였다.

...

장례식에서 울컥울컥 울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실 때 잔치를 하고 싶었다. 그것도 정해져 있는 명절이나 생일날이 아니라 일부러 날을 잡아서 온전히 어머니께 바치는 날로 하고 싶었다.

어머니랑 산 지 여섯 달. 어머니 곁에 누워 자면서 하룻밤에도 두세 번씩 어머니랑 같이 일어나 오줌 누이고 똥 누이고 하면서 ‘지금 바로’ 이런 잔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루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내일’이라고 늘 느껴 왔던 것이다. 아침에 몇 번을 깨워도 눈을 뜨시지 않아 가슴이 와르르 무너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주 절감해 왔다.

더위나 추위도 피해야 했고 날씨도 봐야 했다. 집안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한 사람 있어서 기도회로 잡았다. 보수 기독교 신자들은 불교 법회나 가톨릭 미사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요일은 피해야 했다. 모실 목사님과 일정 조정도 해야 했고 적은 수지만 모실 분들과도 의논을 해야 했

다.

기도잔치의 예배를 맡을 김민해 목사님 때문에 행사가 1박 2일이 되었다. 김민해 목사님은 교회 건물도 없고 자기 교인도 없이 목회를 하신다. 『풍경소리』발행인이면서 이현주 목사님이랑 <드림실험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덜렁 가서 한두 시간 예배만 봐서야 되겠느냐, 하루 먼저 가서 어머니랑 얘기도 하고 도우미 노릇도 하고서 예배를 봐야 기도발이 서지”라고 하셨던 것이다.

...

내 속마음을 한 장짜리 초청장에 담아 보기로 했다. 초청장을 만들면서 처음 먹었던 내 뜻이 제법 가지런히 정돈되었다. 그리하여 붙은, 세상에 전 무후무하다는 평가를 받은 잔치 이름이 바로, ‘어머님의 건강과 존엄을 생각하는 기도잔치’다.

어머니를 모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내 가슴에 자리잡아 간 것이 바로 ‘존엄’이다. 건강보다도 존엄을 더 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실 건강이 아니라 잡수시면 약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어른들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

기도잔치에는 스무 사람 남짓 청했는데 40명이나 왔다. 찹쌀을 찌서 마당 호박돌에다 놓고 떡메로 쳤다. 떡메치는 것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이 더 신나 했다. 까르르대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우리 집을 맑은 기운으로 가득 채웠다.

어떤 사람은 그랬다. 초청장을 받고 꼭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바꿨다는 것이다. 몇 달째 찾아뵙지도 못한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떠올랐다는 것이다. 어머니를 찾아뵙기로 마음을 바꾸었다며 못 가니 이해하려고 연락이 온 것이다.

한 참석자는 이틀 동안의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도리어 내게 고맙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 기도잔치 덕분이라고.

이것이야말로 기도잔치를 하게 된 가장 큰 의미라 하겠다. 모두가 마음 속에 자기 어머니를 모시는 일 말이다.

- 농부 전희식이 치매 어머니와 함께한 자연치유의 기록, 「똥꽃」 중에서

엄마의 기도

착하고 지혜롭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남에게 양보하고 저줄 줄도 알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친구에게 나눠주고 약한 사람 도와주게
나쁜 머리 되지 않고 착한 꼬리 되게
언제라도 꿈 잃지 않게

내 예쁜 아가야 엄마 기도해 엄마 널 믿어
널 너무 사랑해 널 너무 사랑해
사랑해 아가야

거짓말은 하지 않기 가끔 집안일도 돕기
여자 친구 생기면 꼭 먼저 얘기해 주기
아빠보다 더 큰 사람 되기

내 예쁜 아가야 엄마 기도해 엄마 널 믿어
내 모든 걸 줄게 늘 곁에 있을게
사랑해 아가야

- 전수현, 민호기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시내 윤정덕 구성실 조병무 송양진 김준우 우순덕
 한상의 정영선 김경연 김근종 정옥영 김순복 전영웅 김정길 최숙화
 김지호 김희진 박홍재 문복순 최현선 박애순 배상순 권호진 백묘현
 손성현 윤미경 김춘려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정미경 조문규 진정숙
 박효선 정한구 왕영순 왕성환 강순배 권미숙 김재흥 최희영 전세종
 오정숙 전해리 김금화 송샘

월정헌금:

김미순 김수진 김승현 김영한 이희균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이인웅 이정은 정두리 조순덕 임원민 임수연 정원석 김현영
 최윤희 이현순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재흥 최희영 윤정덕 구성실 임하담 김중수 이순정
 송동준 김진경 김영순 강미선 전해리 허호범 박성실 김희진 박홍재
 장영숙 김춘려 정복순 전세종 이인웅 이인섭 오복순 오정숙 전성오
 차혜심 박옥식 윤석철 장혜숙 이종현 김성경 김필순 무명

녹색꿈 헌금:

김희우 김준우 이봉배 윤미경 윤수진 문금석 우순덕 방문성 박혜경
 한상의 정영선 박병구 나오미2선교회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장혜숙	나들이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배부례	김영한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나들이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박정숙	신영신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문금석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송의섭	나들이
시온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홍복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갑재	최영혜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이봉옥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임영선	김필순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정현주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백혜숙	정영선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김혜권	나들이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이봉배	나들이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나들이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어버이주일** : 오늘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는 어버이주일입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께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2. **부장회의** : 오늘 오후 1시에 사무실에서 교육부장회의가 있습니다.
3. **아름다운원로** : 14일(목)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옵니다. 장소는 강원도 설악산 일대입니다.
4. **CO₂저감 실천단 모집** :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CO₂ 저감 실천단을 모집합니다. 대중교통이용, 전기절약, 곡채식 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5. **결혼** : 김태훈 씨와 김도연 씨의 결혼식이 이번 주 16일(토) 오후 12시 30분에 대명웨딩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축하합니다.
6. **신앙실천** : 5월은 선물을 전할 일이 많은 달입니다. 선물에 축복의 마음을 담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빌립보 속 (다음 주 : 나사렛 속)

* 설거지 봉사 : 이정현 박권동 (다음 주 : 권혁신 김기성)

새교우 소개

선우영 (8여)

현 진 (5남)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